

어떻게 신의를 이루는가: 중일 범장(范張) "계서지교(鷄黍之交)" 고사의 변천사 고찰

제심원(양주대학 문학원)

요약

성어 "계서지교"는 장소(張劭)와 범식(范式)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이야기 줄거리는 《후한서·독행열전》의 약속대로 방문하고 혼령이 죽음을 알리는 것에서 잡극 《사생교범장계서》의 계서지교로 발전했고, 다시 명대 화본 《범거경계서생사교》의 목숨을 버려 신의를 지키는 이야기로 변했다. 일본 작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는 이 이야기를 개편하여 《국화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후에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의 《괴담》은 《국화의 약속》을 일본 신괴 이야기로 보고 전록하여 서구에 소개했다. 여러 이야기를 비교하면 범장 고사 유변 중의 불변과 변화를 명확히 볼 수 있다. 불변은 "신의"와 지기(知己)에 대한 숭상이고, 변화는 줄거리, 주인공 신분, 이야기 정경 등의 측면에 나타나며, 변동의 심층 동인은 세속 사상의 사전(史傳) 이야기에 대한 침투와 지방 민속의 이야기 정경에 대한 재창조이다.

키워드

장소, 범식, 계서지교, 국화의 약속, 우에다 아키나리

"계서지교"는 중국에서 우정이 깊음을 형용하는 성어 중 하나로, 동한 시기 범식과 장소 교제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중국에서 범장 이야기는 광범위하게 유전되어 사서, 희곡, 소설, 시문 등 다양한 문체에서 인용되거나 연출되었다. 이영(李瑩)의 논문

《범장계서고사의 문본 연변 및 그 문화 분석》(2018)이 이를 세밀하게 정리했다. 일본에서는 범식, 장소가 무네에몬(宗右衛門)과 조부 사몬(丈部左門)으로 변신하여 《우월물어》와 《괴담》 중 《국화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역에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생사 정의를 이어갔다. 《국화의 약속》과 "계서의 약속"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나카다 미요하(中田妙葉)의 《〈국화의 약속〉에서의 "신의"에 관하여 - 중국 백화소설 〈범거경계서사생교〉와의 관계》(2006), 이덕평의 《〈범거경계서사생교〉, 〈국화의 약속〉, 〈수약〉 비교》(2017), 왕자무(王子茂)의 석사학위논문 《중일문학 중 "신의"의 비교연구 - 〈범거경계서사생교〉와 〈국화의 약속〉을 중심으로》(202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범장 고사에 관한 연구는 중국 국내 이야기의 유변에 국한되거나 명대 의화본 《범거경계서사생교》와 우에다 아키나리 《국화의 약속》의 대비에 집중되어 있어, 범장 고사의 중일 유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1. 사서에서 민간으로: 중국 범장 고사의 유변

1) 범엽 《후한서》 중의 범식 장소 이야기

남조 송의 범엽이 쓴 《후한서》 열전 부분 제71권 《독행열전》에 범식과 장소의 우정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장 교제의 관방 기록이다. 책에는 산양 사람 범식(자는 거경)이 태학에서 독서할 때 여남 사람 장소(자는 원백)와 좋은 친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이 태학을 떠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범식이 장소와 2년 후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장소는 어머니에게 친구가 방문할 것임을 알렸지만, 어머니는 2년이 지났고 천리나 떨어져 있는데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장소는 범식이 신용 있는 사람이니 반드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했다. 과연 범식이 약속대로 왔고, 두 사람은 즐겁게 작별했다.

후에 장소가 중병에 걸렸는데, 같은 군의 질군장(鄧君章)과 은자징(殷子征)이 매일 문병했지만 장소는 그들을 생우(生友)라 하고 범식만을 사우(死友)라 했다. 그가 죽은 후 꿈에 범식을 찾아가 자신이 죽었으며 모일 하장될 것이니, 아직 잊지 않았다면 와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고 알렸다. 범식이 깨어난 후 매우 슬퍼하며 하장 날짜

를 계산해 급히 분상(奔喪)했다. 발상일에 영구가 이미 묘혈 앞까지 갔는데 뿌리박은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소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련이 있다고 짐작하여 정구를 멈추고 기다렸다. 잠시 후 백마를 탄 사람이 울면서 왔는데, 어머니가 보니 범식이었다. 범식이 친구와 영결한 후 직접 관 위의 큰 밧줄을 끌어 영구를 순조롭게 하장했다.

이것이 범장 고사의 핵심 인물과 핵심 줄거리를 확립했다 - 범식과 장소가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중시하며 서로 지기로 여긴다는 것이다. 다만 사서에서 범식이 전주(傳主)이고 장소와의 교제는 그의 개인 전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어서 그와 "사우" 진평자(陳平子), 친구 공송(孔嵩)의 이야기도 있다. 세 이야기 중 범식 장소 이야기 "영혼 탁몽"과 "영구 대우"가 있어 가장 신비한 색채를 띠며, 간보(干寶)의 《수신기》에도 기록되었다.

범엽 《후한서》의 기재에는 범장 상회의 구체적 날짜가 없고 모임 세부사항에도 "계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인의 책에 인용된 것을 통해 추측하면, 오늘날 이미 망실된 전적 사승(謝承) 《후한서》에 기록이 있었다. 《북당서초》 권144 "서" 편에 "원백이대거경" 구절이 있고, 이어진 주석에 사승 《후한서》가 "9월 15일에 이르러 닭을 잡고 기장을 찢어 거경을 기다렸다"고 언급했으며, 왕선겸 《후한서집해》도 "혜동이 말하길 사승서에 '거경과 원백이 친구가 되어 봄에 경사에서 작별하고 가을로 기약했다. 9월 15일에 이르러 닭을 잡고 기장을 만들었다'"고 기재했다. 후에 원나라 궁대용이 잡극을 창작할 때 이 날짜와 닭을 잡고 기장을 만드는 세부사항을 연용했다.

2) 잡극 《사생교범장계서》

원나라 궁대용이 《후한서》 중 범식 장소 이야기를 기초로 잡극을 창작했다. 잡극은 여전히 범식을 주인공으로 하여, 시작부터 친구의 작별로 범식이 2년 후 9월 15일 동창 장소의 여양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한다. 장소는 그때 집에서 닭을 잡고 기장을 찢어 기다리겠다고 했다. 2년이 되자 범식이 계서회에 가고, 장소는 집에서 닭을 잡고 기장을 찢는다. 범식이 도착한 후 장모가 아들에게 술과 계서반을 내와 친구를 대접하라고 했다. 작별할 때 두 사람은 내년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뜻밖에 장소가 병으로 죽어 혼이 천리를 가서 범식을 찾았다. 범식이 기뻐했지만 장소는 숨고 피하며

자신이 이미 죽은 혼이라고 알렸고, 범식이 즉시 밤낮으로 달려 분상했다. 7일 후 장소 어머니가 아들을 하장하려 했지만 영거가 어떻게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후에 범식이 도착하여 관을 열고 형제의 마지막 얼굴을 보겠다고 고집했다. 후에 범식이 영거를 끌어 친구를 매장하고 분원에 소나무와 측백을 심고 무덤을 쌓아 수상(守喪)을 100여 일 했다가, 관원 제오륜(第五倫)이 성지를 선독하여 범식을 관리로 천거할 때까지 했다.

잡극은 범장 고사 전파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고리다. 첫째, 잡극은 제명에 "범장계서"가 있을 뿐 아니라 문본 곳곳에서 "계서"를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부각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전극에서 계서를 연용한 곳이 11곳이나 되고, 설자(楔子)만 해도 두 곳이다. 두 사람이 작별할 때 장소가 "동생이 집에서 닭을 잡고 기장을 찌며 형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범식의 창사에 "어찌 운유(雲腴)를 빚어야 하겠는가, 닭을 잡고 기장을 찌면 되지"라고 했다. 이렇게 "계서"가 범장 2년 약속의 표지적 사물이 되었다. 이는 인물 이야기에 연화온정(煙火溫情)을 부여하는 동시에 "계서지교"를 범식 장소 우정의 대칭으로 만들어, 그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반 역사 이야기에서 뛰어올라 전문 지칭이 있는 "명품" 이야기가 되었다. 둘째, 잡극은 많은 감동적인 세부사항을 증가시키고 여러 장면을 조성했다. 예를 들어 혼백이 꿈에 들어와 범식은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지만 장소는 갖가지로 피하는 장면, 범식이 친구를 통곡하며 관을 열고 형제의 마지막 얼굴을 보겠다고 고집하며 "시체 냄새가 나를 죽게 해도 형제와 함께 묻히면 더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다. 범장의 약속에서 원 잡극의 "계서약"까지, 범식과 장소의 우정 이야기는 구체적인 생활 세부사항과 정경을 갖게 되었다.

다만 잡극의 "사생교"는 사서에 기재된 장소가 범식을 "사우"로 여긴다는 의미를 연용했지만, 화본에서는 "사생교"에서 문장을 만들어 더욱 놀라운 줄거리를 파생시켰다.

3) 화본소설 《사생교범장계서》

화본소설 《사생교범장계서》는 제목상 원 잡극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식 장소 이야기를 대폭 개편하여 계서지약의 핵심 줄거리만 보류했다. 이야기는 장소가 과거

길에 여숙에서 고향에 든 범식을 만났다는 것이다. 장소는 그도 응시하는 수재임을 보고 비록 소면평생이지만 아낌없이 금전과 시간을 들여 의약을 구하고 세심하게 간호했다. 며칠 후 범식이 완쾌했지만 장소는 이 때문에 시험 시기를 놓쳤다. 이 기연으로 범식과 장소가 형제를 맺었다. 두 사람이 작별할 때 마침 중양가절이었다. 범식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으니 장소의 어머니가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다. 1년 후 중양에 장소 집을 방문하여 고당을 뵈겠다고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장소는 범식이 반드시 온다고 고집하여 일찍 계서를 준비해 대접했다. 그러나 좌등우등 해가 질 때까지 범식이 오지 않았다. 장소가 한밤중까지 기다리자 범식이 바람과 함께 왔다. 장소가 기뻐했지만 범식은 계속 우울했다. 장소가 원인을 물으니 범식이 장사하느라 바빠 시간을 잊었다가 중양절 아침에 이웃이 술을 보내와서야 약속 시간이 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신의를 잃을 수 없지만 하루 사이에 어떻게 천리 밖에 갈 수 있겠는가? 사람의 혼백이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처자와 결별하고 자결하여 혼백으로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것이다. 범식은 장소가 산양에 가서 자신의 시체를 보고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희망했다.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장소가 혼절했다가 깨어나 대곡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과 작별하고 산양 범식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바로 영구 하장하는 날이었다. 장소가 범식 묘변까지 쫓아갔는데, 송장 행렬이 움직이지 않는 관에 경악하고 있었다. 장소가 제전 치사하고 후사를 교대한 후 관 앞에서 자결했다.

화본 범장 고사는 《후한서》 기재 및 잡극 《사생교범장계서》와 비교하면 개편이 크다.

첫째, 줄거리 변동이다.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원인이 다년간 동창에서 평수상봉 때의 구명지은으로 바뀌었다. 가장 중대한 줄거리 개편은 범식이 약속을 위해 죽고 장소가 지기에 보답하기 위해 죽는 줄거리를 추가한 것이다. 화본은 범장계서 고사를 대폭 개조하여 완전히 역사적 제한에서 벗어났다. 원래 순조롭게 완성된 계서회가 범식이 날짜를 잊어 제시간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신"을 보전하기 위해 자결하여 혼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장소는 집에서 고대하다가 새벽부터 밤까지 기다렸다. 친구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안 후 죽을 결심을 품고 어머니와 동생과 작별한 후 마침내 친구 관 앞에서 자결했다. 원래 범장 두 사람이 성공적으

로 모이고 후에 장소가 병사하여 혼이 죽음을 알리고 범식이 천리를 달려 장례를 치르는 것에서, 범식이 주동적으로 목숨을 버려 혼백으로 약속을 지키고 장소가 천리를 달려 조문한 후 자결하는 것으로 변했다.

둘째, 주인공 변동이다. 사전과 잡극에서 주각은 모두 범식이다. 그는 신의를 중시하여 2년 후의 천리 약속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는 득난한 "사우"로서 한 꿈을 위해 천리를 달려 친구를 위해 상사를 처리한다. 장소의 존재는 범식의 미명을 흘타하고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화본소설에서 주각은 장소가 되었다. 그는 대의로워 낯선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은 피하지만 장소는 전력으로 구하여 전도를 지체해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는 중정하여 범식이 목숨을 버려 약속을 지켰으니 그는 밤낮으로 달려 친구 관 앞에서 자결하여 지기에 보답했다. 그는 사려가 주전하여 죽을 뜻을 품은 후 먼저 어머니를 동생에게 부탁하고 자결할 때도 "관곽이 비"를 가져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셋째, 인물 신분 변동이다. 《후한서》 원초 이야기에서 범식과 장소는 모두 실존 인물이고, 장소가 죽은 후 범식은 계속 관직을 담당했다. 잡극에서 범식과 장소는 낙백했지만 여전히 모두 유생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범식은 상인으로 "세본상가" "굴재상가중"이며, 그가 과거를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상종문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작별한 후에도 여전히 "익신상가중"이다. 장소는 농민으로 "가본농업, 고지독서"이고, 제서지약 당일 그의 동생은 "전두수할"하러 갔다.

넷째, 약정 시기 변동이다. 사서와 잡극에서 약정 시기는 9월 15일이고, 화본에서는 이별일과 약정일이 중양절로 변했다. 이야기 정경에 국화가 있고 수유가 있다. 중국 문화에서 중양절은 중요한 날이다. 당대 저명 시인 왕유의 《9월 9일 역산동형제》 "요지형제등고처, 편삽수유소일인"이 중양절 형제 단원, 머리에 수유를 꽂고 등고하는 전통을 썼다. 화본이 날짜를 중양절로 바꾼 것은 이야기의 전형성과 비극성을 증가시켰다.

화본소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가입하여 모순 충돌을 증가시키고 전체 이야기의 충격력을 증강했다. 범식이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비이소사(匪夷所思)한 행위는 그의 신의를 지키는 형상을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렸다. 장소가 지기에 보답하기 위해 효도를 버리고 우정을 택하여 친구와 함께 지

하에 장면하는 그의 지기를 위해 죽는 형상도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다. 화본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극이다. 비록 결말에 그들 두 사람이 조정에 의해 추봉 표창되었지만, 세간에 득난한 광휘 인격을 가진 두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이든 그들 신후 두 가정 과부와 노모의 장구한 비상이든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희허장탄하게 한다. 그러나 비극은 늘 더 인상 깊다. 화본의 변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범장 고사에 농묵중채를 더하여 이야기의 영향력을 크게 증강했다.

범식과 장소 신분의 변화는 바로 범장 고사가 사서에서 민간으로 가는 필연적 결과다. 사서 중 범식 형상은 사대부 계층의 도덕 해모이고, 잡극 중 범식은 원대 낙백 문인의 이상 투현이다 - 작자는 현실 인생이 좌절되어 고결한 인격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거나 심지어 이를 빌어 종남첩경을 얻기를 기망한다. 이런 설정은 사인, 문인 계층의 심리 수구를 만족시켰다. 송대 이후 도시 경제의 변영과 시민 계급의 굴기로 시민 문학이 흥성하고 화본소설이 광범위하게 환영받았다. 이런 소설은 역사 명인의 전기 경력을 강술할 뿐 아니라 시정 소민의 비환리합을 묘사하는 데 더 주중하여 보통 대중의 생활과 가치 관념을 이야기에 융입시켰다. 이런 배경 하에서 범장 고사는 새로운 사회 내함을 부여받았다. 범식과 장소의 신분은 더 이상 고당 사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평민 색채를 갖춘 상인과 농민으로 재조형되었다. 이런 신분의 전변과 형상의 재조형은 하층 민중의 우정, 신의 등 가치에 대한 인동과 추구를 체현할 뿐 아니라 보통 민중이 동계층 도덕 해모를 갈구하는 심리 수구에도 영합했다. 따라서 범장 고사의 사서에서 민간으로의 전변은 단지 이야기 재체와 줄거리 인물의 전변이 아니라 중국 중고 사회 구조 변동, 시민 문화 변영의 한 축영이다.

2. "계서지약"에서 "국화지약"으로: 범장 고사의 일본화

1) 일본 독본소설 《우월물어》의 범장 고사 개사

에도 시기 중국 백화소설이 대량으로 일본에 전입되어 일본의 독본소설을 최생했다. 많은 중국 백화소설의 이야기가 일본 이야기로 번개되었는데, 그중 풍몽룡의 "삼언"(*《유세명언》* *《경세통언》* *《성세항언》*)이 번개의 인기 대상으로 일본 독본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시자키 마타조(石崎又造)는 지적했다: "*《전등신화》*에서 *《가비자》*

《구장자》로; '삼언' 즉 중국 단편 백화소설에서 독본의 《영초자》《변야화》《우월물어》로. 즉 '삼언'은 독본으로 향하는 문이고, 동시에 독본이 《가비자》《구장자》를 추소하는 갑문임을 잊을 수 없다."

우에다 아키나리의 《우월물어》는 독본소설의 걸작이다. "쓰가 데이쇼(都賀庭鍾)가 독본의 조로서 그가 개창한 독본소설이 그의 제자 우에다 아키나리에 이르러 등봉조극의 지보에 달했다." 책 중의 《국화의 약속》은 《범거경계서생사교》를 개사한 것이다. 이야기는 청빈한 유생 조부 사몬이 어느 날 동향을 방문했다가 이웃방에 외향인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고 전염 위험을 무릅쓰고 의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외향인은 무사로 성은 아카나(赤穴), 이름은 무네에몬이었다. 곧 아카나가 병이 나았고 두 사람은 서로 지기로 여겨 형제를 맺었다. 아카나는 조부 집에 머물렀다. 초여름에 아카나가 귀향하여 탐시하려 하며 중앙절에 돌아오기로 정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조부는 새벽부터 달이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막 문을 닫으려는데 아카나가 바람과 함께 왔다. 조부는 기뻐했지만 아카나는 계속 탄식하며 자신이 이미 음혼이라고 했다. 원래 그가 귀향한 후 당제 아카나 단지(丹治)가 그를 성주 경구(經久)에게 인견했는데, 아카나가 관찰한 후 오래 머물 수 없음을 발견하고 국화의 약속이 있다고 알렸다. 뜻밖에 그가 단지에게 곤금되어 도피할 계책이 없어 자결하여 혼백이 천리를 달려 약속을 지켰다. 다음 날 조부가 어머니와 작별하고 아카나의 고향으로 가서 유골을 수습했다. 그는 단지를 찾아가 호작장(虎作張)하여 형장이 비명에 죽게 했다고 통척했다. 그는 단지를 죽이고 도망쳤다.

《국화의 약속》은 《범거경계서생사교》와 비교하여 이야기에 극히 진실감 있는 역사배경을 증가시켰다. 장소를 파리마국(播磨國) 가고역(加古驛)의 유생 조부 사몬으로 바꾸고, "근세의 군기 《음덕태평기》를 전거로 하여 아카나를 전국 시기의 무사로 배치했다." 화본소설에서 범장이 두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상식했지만, 《국화의 약속》은 일본 국정과 결합하여 아카나가 난세 중에 호불용이탈신했다가 병도하여 마침 조부 이웃집에 기숙하게 된 것으로 바꿨다. 화본에서 범식이 생계에 바빠 제전에 출발하여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잊었지만, 《국화의 약속》은 당제 단지에게 곤금되어 도피할 계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결국, 화본은 장소가 지기의 정에 보답하기 위해 범식 관 앞에서 제전한 후 자살하고 범처에게 그들을 합장해달라고

청구했다. 《국화의 약속》은 조부가 무네에몬의 신의와 단지의 불신을 대비하여 신의의 이름으로 단지를 습격한 후 도일했다.

우에다 아키나리는 또 주 줄거리와 관계가 크지 않은 작은 세부사항을 가입했다. 예를 들어 중앙 날 조부가 아카나를 기다릴 때形形色색의 행인 대화를 들었는데, 상인이 매매 흥왕을 기망하고, 무사가 배에 탑승하지 못해 후회하고, 농인이 말이 게으르다고 견책하는 등이다. 작자는 사실 풍격의 백묘 필법으로 생동한 생활 도경을 전시하여 이야기의 진실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2) 고이즈미 야쿠모가 영문으로 《국화의 약속》을 전사

고이즈미 야쿠모는 과문화 신분을 가진 작가다. 그의 원명은 라프카디오 현으로 영법 문화 환경에서 성장했고, 후에 일본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현지인과 결혼하고 일본 국적에 가입했다. 그는 영문으로 일본 신괴 이야기를 개사하여 《괴담》 일서로 집결했는데, 책 중에 《국화의 약속》이 수록되었다. 《우월물어》와 비교하면 《괴담》 중의 이야기는 매우 정간하다.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어느 날, 아카나 무네에몬이 의제 조부 사몬에게 하직했다"이고, 이어서 중앙일에 돌아오기로 약정했다. 중앙이 되자 조부가 일찍부터 국화와 술을 준비했지만 밤까지 친구가 오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먼저 자게 하고 자신은 또 달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포기하려는데 아카나가 왔다. 아카나가 좌정한 후 눈앞의 주채를 만지지 않고 장탄한 후 경력을 말했다. 그가 부전(富田)으로 돌아갔는데 당제 단지가 이미 신성주 니시 경구 문하에 투항했다. 그는 당제의 권설 하에 경구와 접촉했지만 심복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물러나려 했으나 경구가 단지에게 명하여 아카나를 금금했다. 그는 제시간에 국화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칼을 빼어 절복하여 음혼이 되어 약속을 지키러 왔다. 다음 날 조부가 출운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단지를 찾아 불의의 거를 통척한 후 중인 앞에서 단지를 참살하고 탈신했다.

《괴담》이 기록한 주요 인물과 줄거리는 《우월물어》와 같지만 부분 차요 내용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조부 가정 상황에 대한 설명, 조부와 아카나가 사귀는 과정, 조부가 아카나 신망을 알게 된 후의 통치 정형, 조부가 단지를 견책하는 말 등이다. 중문 역본으로 통계하면 《우월물어》 중 《국화의 약속》 자수는 4100여 자이고, 《괴담》은

단지 2000여 자료, 비록 일문판과 영문판의 편폭을 정준하게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로부터 일반을 볼 수 있다. 《괴담》 중의 "국화의 약속"은 간략판으로 문학성과 이야기 유창도가 모두 우에다 아키나리의 저작만 못하다. 그러나 《괴담》의 문화 전파 의의는 그 문학 의의보다 훨씬 승한다. 이야기는 모두 영문으로 쓰여졌고, 고이즈미 야쿠모가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일본의 괴담 문학을 서방 독자에게 소개하여 동서방 문화와 문명 소통의 중요한 교량이 되었다.

고로한 이야기에 본지의 구체적인 역사, 지리 정경을 가하는 것은 그것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범장 고사의 일본에서의 개사와 전파가 바로 이렇다. "계서지교"가 "국화지교"로 변하고, 형제 준비 취회가 중국 전통의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에서 일본 전통의 생선을 파는 것으로 변했다. 범장 고사가 성공적으로 일본 본지 기억에 융입되었다.

3. 범장 고사 유전 중의 변중지상(變中之常): 신의와 지기

한 경전 이야기는 양산백 축영대 이야기, 백사전 이야기처럼 늘 전파 중에 발전 변화하고 민간에서 성숙 정형된다. 사람은 모두 호기심이 있고 모두 이기한 이야기와 경인적인 줄거리를 좋아한다. 범식과 장소의 이야기는 본신 이기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 하나는 장소가 죽은 후 범식에게 탁몽한 것이고, 둘은 장소 영구가 범식을 기다리기 위해 입토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탁몽 줄거리와 영구유령 줄거리는 고대에 매우 보편적이어서 《수신기》에서 후래의 지괴소설까지 유사한 이야기를 수처가견(隨處可見)이다. 진정으로 범장 고사를 제다 부유 괴이 줄거리의 이야기에서 탈영이출하게 한 것은 이야기가 전달하는 수신중약의 가치 관념이다.

2년의 기약, 천리 밖에서, 대부분 사람에게 이 약정은 실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일상생활 중의 췌사와 분요는 사람의 의지를 소마하여 시간을 잊기 쉽게 한다. 고인은 교통 출행이 불편하여 산수가 상격하고 노도가 초초한데, 날짜를 기억해도 매우 견정한 신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부약의 길에 오를 것이다. 범식과 장소 두 인물 형상이 이야기의 가장 독특한 섬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범식이 부약을 위해 간난을 배제하고 수신중낙하며, 장소가 지우에 대해 절대 신임하는 것은 득난한 지기다. 비록

후세 전파 과정에서 유생 범식, 장소가 상인 범식, 농민 장소로 변하고, 해양 너머에서 또 무사 아카나 무네에몬, 유생 조부 사몬으로 변했지만, 비록 줄거리가 자연사에서 자살사로, 혼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장소에서 범식으로 변했지만, 신의와 지기의 주제는 시종 불변했다.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서 "신의"는 모두 사람들이 숭상하는 품질이고, 인생 지기에 대한 갈구는 더욱 천만 인이 같은 심정이다. 화본소설에서 장소가 범식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음 날 산양으로 가려 할 때, 어머니와 동생이 저지하자 그가 말했다:

"사람은 천지에서 생을 받았고, 천지에는 오행이 있으니 금, 목, 수, 화, 토이고, 사람에게에는 오상이 있으니 인, 의, 예, 지, 신으로 이에 배합한다. 오직 신은 소가가 아니다. 인이 목에 배합하는 것은 그 생의를 취함이고, 의가 금에 배합하는 것은 그 강단을 취함이고, 예가 수에 배합하는 것은 그 겸하를 취함이고, 지가 화에 배합하는 것은 그 명달을 취함이고, 신이 토에 배합하는 것은 그 중후를 취함이다. 성인이 이르기를: '대거무늬, 소거무월, 기하이행지재?' 또 이르기를: '족식족병, 민신지의. 부득이이거, 어사삼자하선?' 자왈: '거병.' 또 왈: '필부득이이거, 어사삼자하선?' 자왈: '거식. 개유사, 민무신불립.' 거경이 이미 신을 위해 죽었으니 내가 어찌 경하지 않고 가지 않겠는가?"

중국 고적에서 "신"과 "의"에 대한 논설은 부지기수다. 일본에서 "신"과 "의"는 무사도 도덕 체계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 《국화의 약속》의 결말에서 니시 경구가 조부가 단지를 죽이고 도일한 것을 알았지만 "아카나와 조부 이 대 형제의 정의가 지심함에 감하여 강행 추측하지 않았다." 이 결말은 다시 "신" "의"의 감소 역량을 방대했다.

"계서지교"에서 "국화지약"까지, 범장 고사는 중일 전파 과정에서 "신"의 도덕을 극치로 연역했다. 고금중외, 친구에 대한 갈구와 지기에 대한 반망은 모두 같다. 우리는 신용을 제창하는데, "신"은 사회 양성 발전의 전제이고 개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우리는 지기를 갈구하는데, 인생 과객이 충충하여 범식과 같이 중신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장소와 같이 견정불이하게 친구를 신임하는 지기도 득난하다.